

태국 2022: 위기가 가지고 온 변화의 기회*

현 시 내**

국문초록

팬데믹이 3년 차에 접어들고 군부정권의 집권이 8년 차에 들어선 가운데 2022년 한 해 동안 위기가 만들어 낸 변화의 조짐들이 보였다. 빠라웃 잔오차 총리는 다섯 번째 불신임 위기를 맞았고, 그를 지지해왔던 보수 우파 세력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2014년 쿠데타 이후 끊임없이 반군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왔던 밀레니얼과 Z세대 운동가들은 정치 세력화에 성공하고, 2023년 5월 총선에서 광범위한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적인 해외여행 규제의 완화로 태국의 관광업이 살아나고, 이는 곧 실업을 저하와 민간 소비 회복으로 이어졌다. 관광업과 수출 중심의 제조업에 의존해왔던 태국이 경제 침체를 겪으며 디지털 인프라 강화, 녹색 및 저탄소 생산업 증대, 노동시장의 개선 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위기가 만들어 낸 또 다른 변화의 조짐이다.

미안마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상회의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태국의 외교적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예전의 경제적, 외교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정치적 혼란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청년세대와 서민층의 개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빠라웃, 치나왓, 최저임금, 총선, 보조금, 인플레이션, 조용한 외교, 대나무 외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0959).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sinac@sogang.ac.kr

I. 들어가는 말

2022년 태국의 정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쁘라윗의 위태로운 줄타기’였다. 2014년 5월 잉락 치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를 몰아내고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뿌라윗 찬오차(Prayut Chan-o-cha) 장군은 군부정권에 대한 모든 비판에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2019년 군부가 세운 팔랑쁘라차랏당(Phalang Pracharat Party, ‘국민의 힘’)은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뿌라윗은 큰 어려움 없이 총리에 당선될 수 있었다. 2020년 COVID-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당시에도 그는 아나콧마이당(Future Forward Party, ‘새로운 미래’)을 해체하고 이에 대항한 태국의 밀레니얼과 Z세대(이하 MZ세대)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보수 우파 세력은 선동죄¹⁾와 왕실 모독죄²⁾를 활용하여 다수의 반군부 민주화 운동가들을 감옥과 법정 안에 묶어두었다. 그렇게 철옹성 같은 뿌라윗 정권에 균열을 낸 것은 정작 그를 총리로 만들어준 보수 우파 세력 내 파벌 경쟁과 2014년 이후 점진적으로 정치 세력화에 성공한 청년세대 민주화 운동가들이었다.

태국 정치의 혼란은 팬데믹으로 움츠러든 서민 경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 팬데믹 위기가 정점을 지나 전 세계가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팬데믹

1) 태국 형법에서 ‘왕국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 조항 중 114조는 ‘정부의 전복’을 위해 준비하거나, 공모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도록 개인을 선동하는 사람, 또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과 조력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흔히 이 114조를 위반한 행위를 ‘선동죄’라고 부른다(Thailand Law Library).

2) 태국 형법에서 ‘왕족’ 관련 조항 중 112조는 ‘왕족 모욕 및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으로 누구든지 왕, 여왕, 승계자, 또는 섭정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Thailand Law Library). 흔히 이 112조를 유럽 왕실의 왕실 모독죄(Lèse-majesté)와 비교하곤 하는데, 태국의 왕실 모독죄는 모욕의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의 강도도 훨씬 세다.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었지만, 태국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전 세계적인 해외 여행제한의 완화로 태국 경제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업이 경제회복을 견인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2022년에 시작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출렁거리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태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동남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일어서기에는 태국의 정치 상황도, 태국의 외교력도 불안 요소를 갖고 있어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2023년 총선은 위기에 처한 태국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민주화 운동의 기수였던 MZ 세대들이 정치세력화하고 뿌라웃을 비롯한 기존의 보수 우파 세력 내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총선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치엘리트의 세대교체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이는 곧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찌 보면 팬데믹과 군부정권의 장기 집권이 만든 위기는 태국 보수 엘리트가 외면해왔던 서민들과 젊은이들에게 각성의 시간을 주었고, 해안(‘따사왕’)을 갖게 하였다. 위기가 가지고 온 변화의 기회를 이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떠나 세대교체로 인한 태국의 체제 변동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I. 태국 정치: 체제 변동 혹은 정권 교체

1. 보수 세력의 분열과 뿌라웃의 위기

2019년 총선 이후 군복을 벗고 총리가 된 뿌라웃은 2022년까지

그의 총리직을 위협하는 총 5번의 소송을 당했다. 첫 번째는 총리가 되자마자 있었는데, 당시 야당 의원들은 빠라웃 총리 임명 당시 국가 평화 질서 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 지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불신임 투표로 이어졌다. 이후 빠라웃의 정치생명에 사형선고가 될 수도 있었던 불신임 위기는 각각 2021년 9월과 2022년 8월에 있었다. 2022년에는 야당 의원들이 2014년 8월 24일부터 집권한 빠라웃이 헌법이 정한 8년간의 임기를 마친 것이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구했고, 2022년 8월 24일 9명의 재판관이 5대 4의 투표로 빠라웃의 총리직을 일시 정지시킨다(Montesano 2022).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빠라웃의 임기는 2017년 4월 6일 개정된 헌법이 발효된 시기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아직 2년이 남았다고 판결을 내렸다(Thai PBS World's Political Desk 2022/12/24). 가까스로 총리직을 고수할 수는 있었지만 2022년 8월의 총리직 일시 정지 명령은 빠라웃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태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부도 선고와도 같았다. 이미 판결이 나오기 전 8월 초에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이하 NID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빠라웃 총리가 퇴임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Strangio 2022/08/09).

빠라웃 정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계기는 사실 이전 2021년 9월에 있었던 불신임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9년 총선을 통해 빠라웃을 총리로 만들어 준 팔랑빠라차랏당의 당수이자 현 부총리직을 맡은 빠라웃 잉수완(Prawit Wongsuwon) 장군의 오른팔로 알려진 타마낫 프롬파오(Thamanat Prompow)에 의해 촉발되었다. 팔랑빠라차랏당 내에는 크게 3개의 파벌이 존재하는데, 타마낫 프롬파오는 태국 북부지역에 적을 두고 있다(Chambers 2021). 전직 육군 대위로 1999년 전 탁신 치나왓(Thaksin Shinawatra)총리의 타이락타

이당(Thai Rak Thai, ‘타이애국’)에 들어가면서 정계에 데뷔하고 2014년에는 타이락타이당의 후신으로 여겨지는 프아타이당(Pheu Thai, ‘타이를 위한’)에 입당하기도 했었다. 2019년 팔랑쁘라차랏당이 전국구와 지역구에서 표를 얻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하고, 선거 후 민주당과 다른 보수당과의 협상을 통해 연합정부가 구성될 수 있게 하여 뿌라웃에게 총리직을 선사한 한 공을 인정받아 2021년 6월에 당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 그가 2021년 9월 의회에서 뿌라웃 총리를 축출하는데 가담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농림부 차관직에서 해임되었다(Sattaburuth and Nanuam 2021). 해임은 타마낫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지도자인 뿌라웃이 있고, 그 자신도 정치적 브로커로서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이미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팔랑쁘라차랏당에서 제거된 20명의 의원들 대부분은 지방 행정조직 구성원이거나 의장으로 지역 정치에서 활약했던 이들이 80%를 차지한다(Sirivunnabood 2022). 2021년 9월 해임 이후 당에 계속 남아있던 그는 결국 2022년 1월 세타깃타이당(Thai Economic Party)으로 옮겨간다(Matichon Online 2022/01/20).

뿌라웃이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준 팔랑쁘라차랏당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뿌라웃이 이 당의 당적을 둔 적이 없고, 무엇보다 그의 오랜 전우이자 의형제와도 같은 뿌라웃과의 관계 때문이다. 2014년 쿠데타부터 2019년 총선 이후까지 둘의 관계는 돈독했지만, 뿌라웃 정권에 대한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의 도전이 지속되면서 뿌라웃으로 인해 군부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한 다른 파벌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팔랑쁘라차랏당이 2023년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에 총리 후보로 뿌라웃 왕수완을 지명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뿌라웃은 생존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Thai PBS World’s Political

Desk 2022/12/31).

결국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빠라웃은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는 루암타이상찰당(United Thai Nation Party, ‘국가 건설을 위한 타이 통합’)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2019년 팔랑쁘라차랏당과 여타 군부, 보수 엘리트 세력이 단결하여 빠라웃을 총리로 만들어주었지만, 이미 다섯 차례 불신임 위기를 겪은 그는 이제 자신을 총리 후보로 선출해 줄 당에 가입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23일 발표 전 빠라웃은 빠라웃과의 사이가 여전히 돈독함을 과시하며 결국 루암타이상찰당도 팔랑쁘라차랏당과 같다고 공언했다(The Nation 2022/11/28).

빠라웃과 빠라웃이 경쟁하는 가운데 어부지리를 취하고 이가 바로 현 태국 보건부 장관이자 품짜이타이당(Bhumjaithai Party, ‘타이 자존심’)의 당수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이다. 탁신 총리 시절 타이락타이당에 속하기도 했던 아누틴은 2012년 품짜이타이에 입당하고, 같은 해 당수로 뽑힌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로 보건부 장관으로서 태국 정부의 팬데믹 대응 정책을 진두지휘하던 그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2019년부터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추진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Head 2022). 2022년 6월 9일 태국의 거리 곳곳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팔리기 한 달 전부터 아누틴은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는 대마초 백만 개를 보급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Chen 2022).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가져올 사회적 혼란이 자명하지만 아누틴은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고 있고, 그 의료적 효과가 증명되었음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그가 강조한 것은 대마초 생산과 무역을 허가하여 태국의 농업을 살리자는 것이다(Campbell 2022). 팬데믹 전후로 태국 내수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 생산이 잦은 홍수와 자연재해로 많은 타격을 입었고, 이는

곧 식품 가격의 상승과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이에 아누틴은 환금성 작물(cash crop) 중에서도 현금 가치가 가장 높은 마리화나의 생산과 판매, 더 나아가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태국의 내수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국의 농업을 살리자는 슬로건 뒤에 숨은 품짜이타이당의 아젠다는 바로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통해 태국의 저개발 농촌 지역으로 알려진 ‘이싼’이라고 불리는 태국 동북부 지역의 표를 거둬들이기 위해 만들어 낸 선심성 정책이라는 점이다(Head 2022). 전 탁신 총리와 타이락타이당을 지지했던 레드셔츠(Red Shirts) 대부분이 바로 이 이싼 지역 출신인데, 아누틴은 이싼 지역의 표를 품짜이타이당으로 몰아오기 위해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의 합법화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6월 이후 대마를 넣은 음료수나 커리, 베이커리 등이 태국에서 자유롭게 팔리기 시작하고, 태국은 소위 아시아의 ‘암스테르담’이 되어가는 듯했지만, 2022년 9월 말에 민주당과 프아타이당의 반대로 아누틴이 제출한 마리화나 법 수정안이 철회되었다(Thai PBS World 2022/09/23). 11월 21일 태국 행정법원은 태국 의사와 야당 의원들이 아누틴과 마약통제위원회(Narcotics Control Board)를 상대로 제기한 마리화나의 범법화 소송을 받아들이기도 했다(Strangio 2022/11/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누틴이 이끄는 품짜이타이당은 선전하고 있다. 타마낫의 해임, 그리고 빠라웃과 빠라윗의 결별 아닌 결별 이후 보수 엘리트 사이에서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사이 팔랑빠라차랏당을 비롯한 각종 보수/진보당 소속이었던 40여 명의 하원의원이 품짜이타이당으로 옮겨갔다(Jatusripitak 2023/01/13). 아누틴에게는 이미 타이락타이당원이었던 시절부터 연결된 정치 브로커들이 결집하여 있고, 페팅탄이나 빠라윗, 혹은 빠라웃이 가지지 못한 정치적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프아타이당과 군부 세력의

대립 구도에서 아누틴과 그가 이끄는 폼짜이타이당은 ‘제3의 세력’처럼 보여 진보와 보수 세력 모두에게서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곧 여든을 바라보는 빠라윳이나 칠순이 되는 빠라웃보다는 훨씬 더 젊고 정치 경험이 많은 아누틴이 총리직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지금까지 빠라웃 정권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아누틴의 폼짜이타이당이 결국 빠라웃과 빠라윳을 대체할 보수 엘리트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Chalermphanupap 2022/11/11).

다수의 태국의 정치 논평가들이 빠라윳이 국회를 언제 국회를 해산시키고 2023년 총선 준비에 집중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던 가운데, 2022년 12월 14일 태국에서 유력한 승계자로 알려져 있던 팻차라끼띠야파(Bajarakitiyabha) 공주³⁾가 갑자기 쓰러진 후 깨어나고 있지 않아 빠라웃도, 빠라윳도, 그리고 진보세력도 당분간은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움직임을 자제할 것이다(Chalermphanupap 2023/01/06).

2. 청년 민주화 운동의 정치 세력화

이전 국가리뷰나 기사, 논문을 통해 자세히 다루어져 왔듯 2020년 MZ세대가 주도한 민주화 운동은 냉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학생운동의 연장선에 있지만, 2014년 5월 22일 군부 쿠데타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확장된 민주화 운동은 운동 방식의 변혁과 대중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진보지식인과 청년세대 운동가들의 정치 세력화도 성

3) 팻차라끼띠야파 공주는 전 국왕 푸미폰 왕의 첫 번째 손녀이자 현 국왕 와치라롱꼰 왕과 그의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난 유일한 자녀이다. 2005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공부를 마치고 태국의 비공식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2021년부터 국왕의 근위대 사령부 참모장이 되어 활동하였다.

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5년 1932년 6월 24일에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인민당 혁명 83주년 기념일에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고, 이를 주도했던 학생 14명이 구속된다. 이후 석방된 이 학생 지도자들이 주도하여 만든 모임이 카부안간 뿌라차티빠 파이마이(New Democracy Movement, ‘신민주화운동’)다(Silvan 2016). 이 14명의 학생 중 반은 방콕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나머지 7명은 콘깬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환경운동을 하고 있었던 다오딘(‘지구의 별’)의 구성원이었는데, 이 다오딘 리더 중 하나가 2017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자투팟 분파타라락사(Jatupat Boonpattaraksa)다(Haberkorn 2015). 방콕에서 활동하고 있던 탐마삿 대학 법대 출신의 롬 랑시만(Rome Rangsiman)은 2018년 아나콧마이당에 입당한 뒤 2019년 27살의 나이로 비례 의원이 되었고, 현재는 까오끌라이당 홍보부에서 활동 중이다(Sattaburuth 2022).

전통적인 엘리트 중심 정계의 빗장을 열고 표현과 행동의 자유의 확대를 부르짖은 MZ세대의 목소리에 대답한 곳이 2018년 3월에 조직된 아나콧마이당이다. 군부의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에 있었던 총선거에서 무려 17%가 넘는 표를 받고 8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제3정당이 되지만, 결국 2020년 2월에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된다. 이에 2월 22일 탐마삿대학, 치앙마이대학 그리고 나레쭌안 대학에서 시작된 시위는 대학, 고등학교, 전문학교 등으로 퍼져 나가 아나콧마이당이 해산된 2월부터 3월까지 약 3주 동안 47개의 대학에서 총 86번의 플래시몹 시위가 벌어진다(Lertchoosakul 2021: 3). 곧 COVID-19 팬데믹 선포로 인해 4월부터는 온라인 캠페인에 집중하게 되지만, 아나콧마이가 청년 운동가와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만든 ‘뉴 젠 네트워크(New Gen Network)’ 출신의 포드(Ford)와 제임스(James)라는 별명을 가진 LGBTQ⁴⁾ 운동가들이 Free

4) “LGBTQ”는 레즈비언(Lesbian), 동성애자(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

Youth(태국어로는 ‘아와촌 뿔룻 액’) 을 조직하고 7월 18일 방콕의 민주화 기념탑에서 5000여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거리 시위를 재개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학생 시위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McCargo 2021: 5, 11-13).

비슷한 시기 아나콧마이의 65명의 의원 중 55명이 2014년에 조직된 루암파타나찰타이 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당 이름을 ‘까오끌라이(Move Forward Party, ‘멀리 전진’)'로 바꾼다. 새로운 리더로 지명된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은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중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태국으로 돌아와 가업을 물려받은 젊고 전도유망한 CEO였고, 2019년 아나콧마이의 당수였던 타나톤 쩡롱루앙킷(Thanathorn Juangroongruangkit)의 제안으로 아나콧마이에 입당한 뒤 하원의원이 된다(Rojanaphruk 2020). 까오끌라이당의 당수가 된 뒤에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학생 운동가 세력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징병제 폐지, 개헌, 부패 군부 정치인 퇴출, 결혼 평등 법안 발의 등에 앞장서 왔다. 특히 2021년 2월 왕실 모독죄 개정을 비롯한 총 다섯 가지의 정치개혁 관련 법안 초안을 제출한 까오끌라이당은 왕실 모독죄 개헌 관련 법안만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자 태국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왕실 모독죄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폐지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2020년 8월에 MZ세대 운동가들에 의해 불붙여진 왕실 개혁 요구에 힘을 실었다(Thai PBS World's Political Desk 2021/11/03).

이에 따라 피타가 이끄는 까오끌라이는 곧 아나콧마이 지지자뿐만 아니라 MZ세대의 압도적 지지도 받게 된다. 2021년 10월에 실시한 온라인 여론 조사에서 피타가 총리가 되었으면 하는 인물 1순위로 뽑혔고, 2022년 3월 NIDA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1위 자리를

(transgender), 퀴어(queer)의 약자로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소수자”를 의미한다.

고수했다(Thai PBS World's Political Desk 2022/03/27). 2020년에 나온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말이면 Z세대에 속하는 18-26세 사이 인구가 768만 명에 이르게 된다. Y세대에 속하는 27-35세 사이 투표권자는 839만 명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18-35세 사이 투표자가 무려 1,600만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9년 3월에 열린 총선에서 팔랑쁘라차랏당 844만 표, 프아타이당과 아나콧마이당이 각각 788만 표와 633만 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진보 정당들 뿐만이 아니라 보수정당들도 Z세대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Chalermphanupap 2021/12/16).

3. 친구이자 적(frenemy): 프아타이 대 까오끌라이

까오끌라이의 정치적 행보에 위협을 느끼는 이는 오히려 보수 세력과 군부정권보다도 탁신 치나왓 총리와 가까운 프아타이당일 것이다. 실제로 2021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NIDA의 여론 조사를 보면 18-25세 사이의 응답자들의 30.77%, 26-35세 사이 응답자의 32.59%가 까오끌라이를 지지한다고 대답했지만, 프아타이당에 대한 연령별 지지율은 18-25세 사이에서 18.88%, 26-35세 사이에서 16.61%가 나와 프아타이당 내에서 전세 역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혹은 인물 영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Chalermphanupap 2021/12/16). 이에 따라 2021년 10월 탁신의 막내딸인 페팅탄 치나왓(Paethongtarn Shinawatra)이 프아타이당의 포용과 변혁 전략팀의 고문으로 영입되었고, 2022년 3월에는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자 1위로 우뚝 섰다(Online Reporters 2021; Matichon Online 2022/03/22). 2022년 11월에 이루어진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아타이의 페팅탄과 까오끌라이의 피타가 각각 24.18%, 16.7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들이 현 총리 빠라웃(15.23%)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이유는 ‘신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었다(Thai PBS World’s Political Desk 2022/11/13). 12월 말에 NIDA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4%는 페팅탄을, 14%는 빠라웃을, 그리고 13.2%가 피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순위 변동은 있었지만, 여전히 피타와 그를 지지하는 MZ 세대들의 잠재력을 무시하기 힘들다(Reuters 2022/12/26).

2022년 하반기 프아타이 당의 약진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프아타이당이 진보와 보수 세력을 통틀어 가장 과격적인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12월 초에 열린 프아타이 당 회의에서 페팅탄은 ‘Think Big, Act Smart, For All Thais’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일일 최저임금 600밧으로 올리고, 사회 초년생 월 최저임금 25,000밧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Thai PBS World’s Political Desk 2022/12/28). COVID-19 팬데믹으로 주요 산업이었던 관광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2022년 전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했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로 인한 빈곤을 증대로 우울했던 태국민들에게 최저임금 상향 조정과 보장은 너무나도 절실했다. 이와 더불어 페팅탄과 같은 유력한 정치 인재 영입과 나타웃 싸이끄아(Nattawut Saikua)와 같은 전 레드셔츠 지도자들의 귀환은 제1여당으로서의 프아타이의 저력을 보여준다(O’Connor 2022/03/22). 프아타이당은 2010년에 레드셔츠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군부와 보수적 엘리트를 대표하는 민주당이 더 이상 정권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23년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landslide win)’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원을 8만에서 14만으로 늘리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Chalermphanupap 2021/12/16; O’Connor 2022/12/13).

프아타이가 ‘압도적 승리’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어서이기도 하다. 2022년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2023년 5월 초에 예정된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당선되는 단일 의원 의석수는 350석에서 400석으로 늘어나고, 비례 대표제를 통해 당선되는 의석수는 150석에서 100석으로 줄어든다. 유권자는 선거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할 수 있도록 두 개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각각의 정당은 최대 3명까지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데, 새로 개정된 선거법은 유권자들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 명부 투표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총리 후보가 있는 당에 투표할 가능성을 높인다. 즉 총리 후보의 전국적 인지도와 인기도가 각 당의 비례 대표 당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기준을 '500'에서 '100'으로 바꾸면서, 규모가 큰 정당이 득표율보다 더 높은 의석 비율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Jatusripitak 2022/09/23; Regalado 2022).

현재로서는 프아타이당의 인지도와 인기가 까오끌라이를 압도하고 있지만, MZ 세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프아타이당이 극복해야 할 장애가 많다. 우선 탁신과 레드셔츠가 대표하는 보수적 진보성이다. 전국적으로 7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타이락타이당의 총수로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은 30박 의료보장정책과 같이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약과의 전쟁, 딱 바이 학살과 같은 국가 폭력을 주도하고 다수의 부정부패 사건과 연루되었다. 더불어 왕실 모독죄와 같이 최근 2~3년간 태국 정치의 태풍의 눈과도 같은 이슈에 대해 탁신은 이제까지 왕실 모독죄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고 공언함으로써 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왕실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Chalermphanupap 2021/12/16).

문제는 지금 태국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MZ세대와 청년층은 탁신의 과거와 레드셔츠의 정치적 성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이다(McCargo 2021: 8). 무엇보다도 이들은 '자유'와 '인권'이

라는 가치에 집중한다. 2020년 MZ세대가 주도한 민주화 시위의 요구사항은 헌법 개정, 총리 퇴진, 왕정 개혁이었다. 즉 태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군부 출신 총리를 퇴진시키고, 보수 엘리트의 수명을 연장시켜온 헌법과 왕실의 힘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MZ세대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탁신 중심의 정치에 집중하는 레드셔츠는 이미 기성 정치세력보다도 다름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기에 2020년 시위 주동자들과 학생 운동가들은 레드셔츠 정치가들과 선을 분명히 그었고 서로의 가치와 목표가 다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프아타이당 출신으로 탁신의 여동생인 잉랏 치나왓 정권 시절에 교통부 차관을 지낸 차찰 췌티판(Chadchart Sittipunt)의 2022년 방콕 주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MZ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차찰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프아타이당과 거리를 두고 기존 선거 캠페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시선을 끌었고 결국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Strangio 2022/05/23).

MZ세대들에게는 아나콧마이나 까오플라이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과 성향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보였을 것이다. 2020년 까오플라이당 소속 의원들은 타마낫 프롬파오가 1994년에 헤로인 밀반입으로 호주에서 4년 동안 징역형을 산 것에 대해 의원 자격이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의뢰했다. 비록 2021년 5월 태국 헌법재판소는 타마낫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이 사건을 통해 군부 출신 정치인들의 자격 논란과 불신이 한층 더 커졌다(Thai PBS World's Political Desk 2021/05/07). 또한 까오플라이는 2020년부터 왕실 모독죄의 남용을 비판하고, 개정이 불가하다면 취소 가능하다고 2021년 말 발표함으로써 왕실 모독죄의 개정에 미온적인 프아타이당과의 차별화를 확실히 했다. 진보적 행보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까

오끌라이에 대한 MZ세대의 지지율은 아직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2019년 총선 때 아나콧마이가 신생 정당으로써 선전했던 데 비해 선거법 개정으로 2023년 총선에서 까오끌라이는 군소정당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아타이당과 까오끌라이당이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이 둘을 프레너미(frenemy, ‘친구이자 적’)로 평하기도 한다(Taptim 2022). 프아타이가 군부와 보수 엘리트 중심의 여당을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장하고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과 팔랑쁘라차랏 외에 다른 보수 정당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발의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까오끌라이와 같은 진보정당과의 연합이 필수적이다. 총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이합집산이 이루어질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으나 프아타이가 우선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권 안정을 위해서도 다른 진보 세력들의 지지와 MZ세대의 포심을 얻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프아타이에게는 ‘탁신’과 ‘레드셔츠’가 태국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매우 냉철한 고찰이 요구되고, 필요하다면 까오끌라이의 진보적 정책과 공약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표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갈라서게 되면 태국은 진보 세력이 친탁신 대 반탁신으로 나뉘는 가운데 군부와 보수 엘리트가 어부지리를 취했던 2014년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Ⅲ. 태국 경제: 회복의 조짐과 불안 요소

1. 더딘 회복

2020년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한해 내내 이어진 정치, 사회적 혼

란으로 태국은 실질 GDP가 6.2% 하락했지만, 2021~2022년 사이 해외여행 규제 완화와 콘 라 크룽(Khon La Khreung, 반값 지원)⁵⁾과 같은 보조금 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2023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실질 GDP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Bhaopichitr 2022/01/12). 이미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 팬데믹 이전 수준의 실질 GDP를 회복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비하면 태국의 회복은 더딘데, 이는 태국의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무역과 관광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관광업은 태국 경제에서 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World Bank Group 2022: 4).

2021년 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5%를 기록했고, 2022년 3분기까지는 3.1%에 이르렀다(NESDC 2022: 1; IMF Communication Department 2022). 2022년 9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실질 GDP가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3분기 동안 4.5% 성장했고, 이러한 극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은 관광산업의 회복과 민간 소비 회복이었다(IMF Communication Department 2022).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68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에 비해 1,863% 증대되었다(NESDC 2022: 4). 2022년 9월에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45%에 도달하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능가했다(World Bank Group Press Release 2022). 11월 21일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협의회 사무국(Office o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이하 NESDC)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민간 소비는 6.5% 증대되었고, 민간 투자는 11% 성장했다(NESDC 2022: 2).

5) ‘콘 라 크룽’은 태국어로 ‘일 인당 반씩’이라는 의미로 이 보조금을 신청한 이들이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을 때 쓰는 비용의 반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정책이다.

민간 소비 회복은 여행 규제 완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회복,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기여가 크다. 국경 폐쇄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40만 태국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했고, 장기화한 팬데믹은 곧바로 태국 전반의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2019년 4분기 16,500억 바트(미화 460억 달러) 수준이었던 가계소비는 2020년 2분기 14,000억 바트(미화 390억 달러)로 급감했다(Amphunan et al. 2022). 이에 태국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콘 라 크룽’이라 불리는 반값 지원 정책을 시작하였고, 성과는 아래 표와 같다(Udomthip 2022). 2022년에는 COVID-19 대응 정책 시행을 위한 총 1조 5천억 바트의 예산 중 1조 3,800억 바트가 이 반값 지원 정책에 쓰였다.

<표 1> ‘콘 라 크룽’ 반값 지원 정책 단계별 성과

단계 및 시행 기간	신용한도 (THB)	참가자/매장 수 (만)		지출액 (THB, 백만)		
		개별 소비자	매장	민간	정부	총계
1-2 단계 (2020.10.23.- 2021.03.31)	3,500	1,476	114	52,251	49,814	102,065
3단계 (2021.07.01.- 2021.12.31)	4,500	2,635	131	113,936	109,986	223,922
4단계 (2022.02.01.- 2022.04.30)	1,200	2,627	136	31,491	30,344	61,835
5단계 (2022.09.01.- 2022.10.31)	800	2,402	970,000* (상인수)	18,343	17,678	36,022

(출처: 2022년 11월 1일 Thai Rath에 나온 “Khon La Krueng Phase 6.”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표로 재구성)

여행 규제 완화로 국내외 관광업이 활기를 띠면서 가장 먼저 서비스업이 부활하여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면서, 2022년 4분기 실업률은 1.2%로 감소하여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에 가까워졌다. 불완전 고용도 같은 기간 8.4%에서 4.6%로 감소하였다.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평균 월급도 2022년 중반에는 전년도에 비해 5.4% 인상되었다(World Bank Group 2022: 18-19). 특히 태국 정부는 2022년 10월 전국적으로 일일 최저임금을 평균 5% 인상해 저소득층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타격을 덜 받도록 지원했다. 인상 후 새로운 일일 최저임금은 328~354밧(미화 8.6~9.3달러), 월별 최저임금은 9,840~10,620(미화 273~295 달러) 사이로 인상되었다(World Bank Group 2022: 11). 실업률의 저하와 임금 인상은 민간 소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투자의 성장은 대내외 수요 회복에 따른 것으로 특히 2021년 1분기 이후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증대가 크게 기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경기침체와 팬데믹과 함께 강화된 규제정책 등을 피해 베트남이나 태국 등지로 이주한 중국계 혹은 외국계 기업들에 의한 것이다(Bhaopichitr 2022/12/21). 태국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외국계 기업이 자동차 및 부품, 전자, 플랫폼 및 디지털 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바이오-순환-녹색(Bio-Circular-Green, BCG) 생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태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간 투자 확대를 촉진시켰다(Bhaopichitr 2022/01/12). 민간투자 성장에 자신감을 얻은 태국 재무장관은 12월 27일 인터뷰에서 2023년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인 3.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Sriring and Thaicharoen 2022).

2. 국제 정세 영향과 서민 경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닫혔던 국경이 열리고 관광이 장려되고 해외직접투자나 무역이 활성화되는 추세인 것은 맞지만, 태국이

완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2022년 초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 대결의 심화로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이 인플레이션과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비 상승으로 성장 둔화 혹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태국의 수출 지향적 제조업 역시 약세를 보여 2022년 경상수지는 2,530억 바트(미화 7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이들 국가에 대한 상품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업과 민간 소비 확대에 의한 경제성장만으로는 안정적인 경제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Bhaopichitr 2022/12/21). 이와 더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금지 조치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2024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태국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29%가 대만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태국 내 제조업과 수출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Yuvejwattana and Nguyen 2022).

유럽 국가들이 천연 가스 비용 상승으로 곤란을 겪었듯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가 국제 유가와 석탄 가격의 상승으로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ASEAN 국가 중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높은 태국에게 연료 비용 상승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잦은 홍수로 식품 가격 또한 올라가 태국의 2022년 4월과 5월 사이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4.65%에서 7.1%로 상승하였다. 급격한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8.4% 이상의 식품 가격 상승과 13.78%의 연료비 상승이었다(Trading Economics 2022). 이전부터 태국 정부는 국내 유가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연료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을 써왔지만,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오히려 연료비 보조금 정책이 국내 연료 소비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결과

를 야기해 정부 재정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정부의 공공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2022년 3분기까지 민간 투자는 5.3% 증가한 반면, 공공투자는 7% 감소했다(World Bank Group 2022: 18; NESDC 2022: 2).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22년 태국의 실업률은 저하되었고 임금은 상승했지만, 4월부터 8월까지 7% 이상 급증한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도 덩달아 상승해버리는 바람에 임금 소득의 증가 효과는 완전히 상쇄되어버렸다. 오히려 대부분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실질 임금 손실을 경험했고, 길거리 상인들은 한없이 치솟는 음식 재료비와 가스비로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World Bank Group 2022: 19; Thoopkrajae 2022).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마련한 반값 지원 정책과 같은 보조금 정책은 팬데믹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즉각적으로 빈곤율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콘 라 크룽 지원 정책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2020년과 2021년 사이의 빈곤율이 6.8%에서 6.3%로 떨어진 데에서도 보여진다(World Bank Group 2022: 13, 19). 문제는 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룽타이(Krungthai)라는 국영은행이 개발한 빠오 탕(Pao Tang)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기를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이미 신청 단계에서부터 차단되는 것이다. 또한 요금제에 따라 인터넷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에서는 이 보조금 신청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Amphunan et al. 2022).

저소득층의 빈곤 상황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프아타이당이 제시한 일일 최저임금 600밧은 그래서 파격적인 공약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현재 태국의 경제구조 상황에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22년 10월 도입된 일일 최저

임금 인상은 미숙련 남성 근로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중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들의 취업난을 심화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한다(World Bank Group 2022: 18-19).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생산성 향상을 초과할 경우 코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영세한 민간기업일수록 증가한 임금 인상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 보충하려 할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World Bank Group 2022: 11). 지금 까오꼴라이당은 표면적으로는 프아타이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동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두 당 사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Taptim 2022).

3. 2023년 전망

태국 은행(Bank of Thailand)은 태국 경제가 2023년 3.7%, 2024년 3.9%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3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절반을 약간 넘는 2,3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시 관광업의 부흥과 이에 따른 고용 강화가 경제회복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관광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민간 및 공공투자가 활발해지면 고용 및 노동 소득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민간 소비를 더더욱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BOI 2022). 이에 국가경제사회개발협의회사무국은 2023년 민간 소비는 3%, 민간 투자는 2.6%, 공공투자는 2.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NESDC 2022: 5). 2023년에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료비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은행은 2023년 연료비 상승률을 9.9%로 보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3년에는 3%, 2024년

에는 2.1%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BOI 2022).

2023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론 복병은 있다. 태국 정부가 특히 2023년의 경제회복의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근 중국의 해외여행 규제 완화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이다. 2019년 중국인 관광객은 매년 태국을 방문하는 약 4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 약 28%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Sriring and Thaichareon 2022). 지금 중국에서 발견된 신종 변이 바이러스나 중국 정부의 불완전한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방문객들에게 사전검사를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Strangio 2023/01/06). 어떠한 예방 정책을 써도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해외 방문객이 증가하는 몇 달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피할 수 없고, 다수의 사람들이 확진되거나 격리됨으로써 관광산업 외의 다양한 산업들의 성장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건너오는 여행객보다는 해외 기업들을 비롯하여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 및 저탄소 생산 기지로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입지를 다져야 한다는 주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Bangkok Post 12/21)

IV. 태국 외교와 한-태 관계: “대나무 외교”와 “가화만사성”의 법칙

1. 대나무 외교의 실효성과 한계

국내외에서 나온 태국 관련 기사들을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

력 확대를 노리는 미국과 중국이 태국에 ‘구애’ 경쟁하고 있고, 태국은 이를 기회로 삼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다. 2022년 6월 미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방콕에서 빠라웃 총리와 만나 태국 국방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팬데믹으로 축소했었던 연합 훈련 코브라 골드(Cobra Gold)를 2023년부터 다시 대규모로 확대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 7월 초 빠라웃 총리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 이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문하여 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우방”임을 강조했다라는 점 등이 그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에 태국의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⁶⁾가 다시 중립과 균형 속에서 자국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한다(Strangio 2022/06/14; Cheeppensook 2022; 한국경제 2022/07/06; 강중훈 2022/11/19).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할수록 오히려 태국과 같은 중소국가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들은 어떻게 보면 태국이 적극적으로 자국의 외교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다.

8년여 간의 집권 기간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빠라웃은 사실 대외관계에 신경 쓸 여력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대나무 외교’라고 정의되었던 태국의 유연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외교 전략은 태국이 지역 정치와 해외 무대에서 영향력을 잃으면서 그 실효성마저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Poonkham 2021; Strangio 2022/07/12; Boonyatus 2020). 태국의 지정학적 중요도는 독재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지속으로 인해 점점 더 떨

6) ‘대나무 외교’는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지는 것처럼 태국이 국가의 생존과 자주를 위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외 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어져, 주변국인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비해 태국의 영향력이 지역 내에서도 현저히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Walker 2022). 2022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3대 주요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회의를 주관하고도, 그 이전의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와 이후 발리에서 열린 G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올해 초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여 국제적 분쟁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G20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공식 대통령 정상회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미·중 갈등이라는 현 외교 정세의 최고 난제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국제 외교 무대의 스타로 떠오른 것에 비하면 2022년 태국의 외교는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제고할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Pongsudhirak 2022).

2022년에 태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일들은 몇 가지 있었다. 단연코 첫째는 30여 년 만에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이다. 1989년 초 방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이 의문의 피살을 당하고 같은 해 사우디 왕실에서 일하던 태국인 청소부의 보석 도난 사건, 그리고 이듬해 도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사우디 외교관과 왕실과 친분이 있는 기업인의 피살 및 실종 사건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민의 태국 여행 금지령과 태국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당시 대한민국처럼 중동특수를 누리고 있었던 태국에게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교 단절에 맞먹는 입국 금지령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과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2022년 빠라우트 잔오차 총리를 자국에 초대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2; 박재원 2022/04/26).

둘째로는 10월 12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 표결을 위해 열린 긴급 특별 총회에서 태국이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34개국과 함께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앞서 3월 2일에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태국이 기권한 것은 예상 밖의 행보였다. 태국 대표단은 “불안하고 격앙된 분위기” 때문에 기권한다고 하면서, 이 결의안이 위기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교의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United Nations 2022). 함께 기권한 베트남이나 라오스의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오랜 관계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태국은 러시아와 척을 진다고 하여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이를 두고 태국의 전통적인 대나무 외교라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하려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강종훈 2022/11/19), 또 한편으로는 결의안 투표 당일 11월 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태국이 기권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APEC 회의 불참을 통보한 상황에서 빠라우트 정부에게 푸틴의 참석 의사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다(Strangio 2022/10/13).

셋째로는 바로 2022년 11월 18~19일 태국에서 열린 APEC 회의였다. 빠라우트 총리가 국제무대에서 지도자의 면모를 내세워 대중적 인기를 높이고, 인도네시아에 가려져 버린 태국의 외교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실제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특별 손님으로 태국을 직접 방문하여 눈길을 끌었지만,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했고, 푸틴 역시 안드레이 벨루소프 제1부총리를 대신 보냈다(Thai PBS World's Regional Desk 2022). 태국의 한 정치학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불참이 직접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게 했고, 태국은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했다(Pongsudhirak 2022). 기술과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자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회의의 주요 슬로건이었던 BCG(Bio-Circular-Green)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있었지만, 정작 이 BCG 모델에 참여하는 태국 기업의 숫자가 적고, 이 경제 모델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다(Thai PBS World's Regional Desk 2022).

2.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법칙

태국의 지역 내 영향력과 세계적 위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군부 정권의 인권탄압, 그리고 내전에 대해 뚜렷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를 핑계로 미얀마의 위기 상황에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2년여의 기간 동안 2,8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망하고, 17,4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체포당했다(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 2021년 쿠데타의 주역이자 현 군부 정권의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장군과 태국 군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내전 상황이 태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인데, 여전히 태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2022년 6월 30일 미얀마 카인 주에서 반군과 전투를 벌이던 중 미얀마 공군의 MiG-29 전투기가 태국 영공을 15분 정도 침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침공에 대해 사과했기 때문에 뿌라웃 총리는 별일 아니라고 사건을 덮었다(Sanglee 2022/07/13). 이에 다수의 평론가들은 뿌라웃 장군 역시 군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을 보존하기 위해 미얀마 군부 정권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말한다(Strangio 2022/01/19).

물론 미얀마의 내전과 인권탄압 상황에 대해 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책임은 없다. 다만 아세안 정상들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2021년 4월에 결정한 5개 합의사항(Five-Point Consensus)⁷⁾이 아무런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서방 국가들은 오히려 이 합의사항을 미얀마 상황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태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Human Rights Watch 2022; Minn Tent Bo 2022). 이에 2022년 초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특사는 뿌라웃 총리와의 면담에서 미얀마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Strangio 2022/01/19). 하지만 2021년 쿠데타 이후 태국 정부의 대응은 내전과 정부군의 탄압을 피해 태국 국경으로 몰려든 난민들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아세안과 유엔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정도였다(Cheppensook 2022).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태국의 외교력을 저평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

7) 5개 합의사항은 “즉각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등이다.

다고 할 수 있다(Strangio 2022/12/20; Sanglee 2021/12/22).

둘째로는 현 정권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인식의 괴리와 인권탄압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혼란이다. 태국의 정치학자 빠니탄 와타나야꼐(Panitan Wattanayagorn) 교수는 태국의 기득권층이 태국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유 무역 지역이나 협정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정작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한 시도에도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한다(Boonyatus 2022). 즉 태국의 외교정책이 국내의 상황과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목표를 세우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내 뿐만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점점 그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22년 초에 발표한 미국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 추진 계획이다. 태국 공군은 현재 사용 중인 F-5와 F-16 전투기가 너무 오래되었고, F-35의 가격이 2007년 1억 4,700만 달러에서 오늘날 8,000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으로 구매 추진 계획을 정당화했지만, 곧바로 3년 가까이 지속된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Storey 2022). 2017년 해군이 중국산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조달하는 과정이 부패로 얼룩져 빠라웃 정부의 불투명한 방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의 값비싼 무기를 수입함으로써 중립과 균형을 지킨다는 태국의 대나무 외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빠라웃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한다.

이와 더불어 태국 내의 인권탄압과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태국이 적극적으로 외교에 임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왕실 모독죄와 선동죄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남용되어 정치적 수감자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다수의 사회 운동가와 인권 운

동기들이 탄압받거나 재판을 받지 못한 채로 장기간 구금된 사례, 그리고 납치, 행방불명, 타살당하는 경우가 늘어가면서 UN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뿌라웃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어지고 있다(Cheppensook 2022). 외신은 그리 주목하지 않았지만, APEC 회의가 있었던 11월 18일에 뿌라웃 정부의 정치적 자유 탄압과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회의장 근처에서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기자를 포함한 30여 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고, 한 운동가가 고무 총알에 맞아 오른쪽 눈을 잃기도 했다. 시위 진압 후에는 24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다(Thai PBS World's Regional Desk 2022). 문제는 이러한 인권탄압 상황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뿌라웃 정부의 대응이다. 2022년 2월 11일, 총리실 차관 섹사꼰 아타왕(Seksakol Atthawong)은 국제 앰네스티를 자국에서 추방하겠다고 위협하고, 태국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의 재정과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Dalferro 2022).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인 새로운 비정부단체 관련 법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Khongkachonkiet 2022).

2014년 쿠데타 이후 한 번도 멈추지 않은 반군부, 반정부 시위와 이로 인한 사회 분열, 그리고 2020년 이후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뿌라웃 정부는 태국의 외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Sanglee 2022/07/13). 인권탄압과 자유의 제한으로 인한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수록 국제사회에서의 태국의 입지와 영향력은 계속 축소될 것이다. 지금 태국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20세기에 명성을 떨쳤던 태국의 대나무 외교가 아니라,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가화만사성’의 법칙일 수도 있다.

3. 한-태 관계

2022년은 한-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2023년은 한국과 태국의 수교 65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 관계에서 협력의 다양화와 지역 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5일 돈 뿌라뭇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및 대 메콩 지역 정책 핵심 협력국인 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그리고 전기차, 디지털·스마트 시티 등 미래 산업과 보건 안보, 방산, 기후변화와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외교부 정책홍보담당관실 2022/08/08).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뿌라웃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계획을 담은 ‘2022-2027 한국-태국 공동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태국이 최근 주력하는 전기차 등 첨단 부문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태국의 기간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뿌라웃 총리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아시아경제 2022/11/11).

태국 총리의 특별한 협조가 필요한 이유는 태국의 주력 산업 분야인 자동차나 전기·전자 부문에 이미 일본과 같이 선제 진출한 경쟁국들이 자리를 굳건하게 잡고 있어, 한국 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2021년 양국 교역규모가 15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의 대 태국 누적 투자액은 약 38억 달러로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8위 투자 대상국이다. 1위인 베트남의 누적 투자액 431억 달러의 11% 정도 수준이다. 2022년이 베트남과의 수교 30주년이고, 2023년이 태국과의 수교 65

주년임을 생각한다면 태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POSCO 등 대기업이 태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태국에 진출한 400여 개 사의 한국 기업 중 대부분이 전기·전자 협력 업체,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주 태국 대사관 2022/03/29).

2021년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8천여 명으로 인도네시아(9천여 명) 다음으로 높다.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도 17만 명을 넘어 20만 8천여 명의 베트남인 다음으로 많다. 특이한 점은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 중 근로자가 31%, 학생이 20%인 반면에, 태국인 중에는 단기 체류가 82%에 달하는 14만 명에 가깝다는 점이다(한-아세안 센터). 이와 함께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사건이 2022년 여름에 있었던 태국인 대량 입국 거부 사태다. 2022년 8월 2일 제주항공 전 세기를 통해 제주를 찾은 태국인 183명 중 112명이 입국이 불허되었고, 3일에는 182명 가운데 108명, 4일에는 168명 중 70명이 입국이 불허되었다. 이어서 5일에는 164명 중 127명, 6일 117명 중 71명, 그리고 7일 98명 중 75명이 역시 입국이 거부되었다. 8월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도착한 태국인 총 1,164명 중 727명(62.4%)이 입국 불허 조치를 당한 것이다(김지훈 2022/08/14). 태국의 ‘더 네이션(The Nation)’ 지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재개된 2022년 7월 이후 만여 명의 태국인이 한국을 찾았고, 그중 거의 절반이 입국이 거부되어 귀국했다고 한다(The Nation 2022/08/06). 이들이 입국을 불허 당한 이유는 대부분 ‘입국 목적 불분명’이었다. 결국 법무부는 제주에 대해 면제했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국민에게는 관광 목적으로 입도하는 경우 30일 동안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 제도가 불법 취업을 노린 가짜 관광객들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부활시킨 것이다(허호준 2022/08/ 08).

이미 2022년 3월 2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한-태국 영사국장 회의에서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 및 관리를 위한 양국 정부 공동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었고, 그 이전에도 태국 내에서도 조직적으로 한국 입국을 도와주는 브로커나,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에 불거진 무단 입국 불허 사태는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2022/03/25; Charoensuthipan and Ngamkham 2022/07/24; Wongsamuth and Moon 2020/12/22). 대부분의 태국인 체류자들은 여권을 연장하지 않거나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이들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단기 체류나 불법노동자라는 약점을 이용당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하고, 막상 태국으로 돌아가도 직업을 찾기 힘든 중년 여성인 경우도 많다.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갑자기 해고당해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도 허다하다.

불법 이주 노동자나 체류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에 들어온 태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다. 일례로 11월 25일 문승현 주태국대사는 수찰 촘끌린(Suchart Chomklin) 노동부 장관을 만나 우선적으로 태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쿼터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2022년에 2,500명에서 2023년 15,000명으로 태국인 노동자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The Nation 2022/11/26). 아직 노동자 정원 증대의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V. 나가는 말

2020년 팬데믹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의 거리를 점령했던 MZ세대의 민주화 운동은 태국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2020년 말 이후 해외 매체나 국내 매체에서 태국의 민주화 운동 관련 소식이 확연히 줄어들고, 이미 동남아시아 여타 국가들보다 고령화도 빠르고 군부 정권도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기에 MZ 세대들이 주도했던 투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들의 투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20년 거리로 나왔던 MZ 세대들의 민주화 운동은 사실 2014년 쿠데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더 정확하다. 당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방콕 시내 한 가운데에서 군부에 저항하는 플래시몹을 하고, 쭈라롱꼰대학 행사에서 학생들이 왕의 동상에 절을 할 수 없다고 뛰쳐나가기도 했다. 그렇게 군부 정권 뿐만이 아니라 태국의 보수 엘리트 전체에 대항하는 MZ세대는 단순히 거리 집회나 온라인 시위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나콧마이냐 까오끌라이당과 같은 진보세력에 합류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내고 있다. 2010년 레드셔츠가 이끌었던 민주화 운동이 유혈진압으로 마무리되고, 2014년 쿠데타 이후 빠라웃 군부정권의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태국의 민주화는 요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2020년 MZ 세대들의 민주화 운동은 태국 정치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023년 총선이 태국 정치 세대교체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프아타이당이 까오끌라이당보다는 선전하고 있고, 군부 내 파벌 세력들이 규합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2022년 빠라웃 정권의 위기는 보수 엘리트 세력의 예전처럼 단결하여 또 다른 보수 정권을 창출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특히 현 국왕이 전대 국왕만큼의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승계 문제도 심심

치 않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라웃과 빠라윗의 결별은 보수 세력을 집결시킬 만한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를 의미한다. 프아타이당의 선전으로 ‘탁신 정치의 귀환’을 이야기하는 정치평론가들도 있지만, 설사 프아타이당이 2023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탁신이 태국 정계로 돌아온다고 해도 2010년 이전의 인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현재 태국의 반군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MZ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탁신도, 레드셔츠도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까오플라이가 진보적 성향이 뚜렷한 18-35세 사이 1,600만 명의 투표자들에게 집중하고 태국의 미래는 그들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이유다.

팬데믹과 빠라웃의 위기가 만들어 낸 변화의 기회는 경제와 대외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초래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연료 비용의 폭등뿐만 아니라 식량 수급 문제로도 이어졌다. 인플레이션은 서민 경제를 압박했고, 끊이지 않는 경제적 불안감은 기존 정치와 경제구조에 대한 불신을 확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국의 주요 무역국인 중국이 경제 침체를 겪으며 태국에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중국 밖으로 이주한 중국계, 외국계 기업들이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하고 태국도 이를 계기로 주요 산업인 관광업, 서비스 산업, 농업 외에 전기차 부품, 디지털 정보 산업, 녹색 및 저탄소 생산업 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진보세력들 사이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저임금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한다는 ‘sweat shop’의 이미지가 강한 동남아시아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고임금이 소비를 촉진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주장하에 총선에서 최저임금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탁신의 30박 의료보장

정책이나 버스요금 무료제와 같은 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도 효과가 있었지만, 최저임금의 상향조절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구휼 정책이 아닌 이들의 소비력 증진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태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023년 총선 결과에 따라 태국의 외교정책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까오꼴라이당의 피타와 같이 MZ세대와 진보세력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인권과 자유다.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우선 미얀마 군부 독재와 탄압에 대해 지금처럼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2021년 쿠데타 이후 빠라웃 정권에게 미얀마 군부에 대한 엄격한 경제제재와 난민 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총선 이후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공산당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과는 마찰이 커질 가능성도 커진다(Sanglee 2022/03/03). 이에 따른 태국의 전통적 ‘대나무 외교’ 또한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태국이 중립과 침묵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가 함께 우려하는 인권탄압과 표현, 이동 등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의 조약과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진영화를 피한 국가의 정체성과 역할이 일치하는 ‘가치 외교(value diplomacy)’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치 외교의 방향 설정은 국내적 합의에 기반하고, 이는 국내 정치사회의 안정을 요구한다(김태환 2018). 태국이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안보를 위한 정치적 변화가 선제 조건이 되어야 하고, 이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2023년 총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종훈. 2022. “[특파원 시선] 미·중 충돌과 태국 ‘대나무외교.’” 『연합뉴스』 11월 19일.
- 김지훈. 2022. “제주, 태국 관광객 60% ‘유턴’에 방콕이 ‘들썩.’” 『JIBS 뉴스』 8월 14일.
- 김태환. 2018.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 및 중견국 사례와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5 (10월 23일): 1-43.
- 박재원. 2022. “태국-사우디 외교 관계 복원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Kotra 해외시장뉴스. 4월 26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_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242%2C505&pNttSn=193840&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검색일: 2023.01.20)
- 아시아경제. 2022. “尹, 한·태국정상회담에서 '한·태 공동행동계획' 채택.” 11월 11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1121353032195>(검색일: 2023.01.19)
- 외교부 정책홍보담당관실. 2022.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태국 외교장관회담(8.5.) 결과.” 외교부. 8월 8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307(검색일: 2023.01.24)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2022. “제5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 개최.” 외교부. 3월 25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204(검색일: 2023.01.24)

- 주 태국 대사관. 2022. “한국의 대태국 투자 현황.”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3월 29일. https://overseas.mofa.go.kr/th-ko/brd/m_24591/view.do?seq=6&page=1(검색일: 2023.01.24)
- 한국경제. 2022. “동남아 영향력 확대 노리는 미중…태국에 ‘구애’ 경쟁.” 7월 6일.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069903Y>(검색일: 2023.01.19)
- 허호준. 2022. “제주 온 태국 관광객 나흘새 60% 입국 퇴짜, 왜? [뉴스AS].” 『한겨레』 8월 8일.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053835.html>(검색일: 2023.01.24)
- Amphunan, Kanpunnarin, Kevin Zhang, and Fanzura Banu. 2022. “Booster Shot? Pao Tang Digital Payment And Thailand’s Domestic Consumption.” *Fulcrum* July 12.
- Bhaopichitr, Kirida. 2022. “Thai Economy To See Uptick in 2022.” *Bangkok Post* January 12.
- _____. 2022. “Uncertainty Ahead For Thai Economy.” *Bangkok Post* December 21.
- Boonyatus, Jeerapa. 2022. “Thailand Needs A More Proactive Foreign Policy.” *Thai PBS World* November 29.
- Campbell, Charlie. 2022. “Thailand Had Notoriously Harsh Drug Laws. Now Weed is Legal - and That’s Making Things Complicated.” *TIME* August 24.
- Chalermphanupap, Termsak. 2021. “Thailand’s Main Opposition Party Hopes For A Landslide Election Victory: A Realistic Goal Or Just A Dream?” *Fulcrum* December 16.
- _____. 2022. “Anutin Charnvirakul: Strongest Contender For The Thai Premiership.” *ISEAS Perspective* Issue 2022, no. 111 (November 11): 1-10.

- _____. 2023. “Thai PM’s New Move
Raises More Questions Than Answers.” *Fulcrum* January 6.
- Chambers, Paul. 2021. “Thailand’s Elected Junta: The Pluralistic
Poverty of Phalang Pracharat.” *Fulcrum* March 12.
- Charoensuthipan, Penchan and Wassayos Ngamkham. 2022. “Where
‘Little Ghosts’ Work Almost Unseen.” *Bangkok Post* July 24.
- Cheepensook, Kasira. 2022. “Diplomatic Balancing in the Quagmire:
Thailand’s Foreign Policy among Great Powers.” *Heinrich
Boll Stiftung* November 8. [https://th.boell.org/en/2022/11/08/
thai-foreign-policy](https://th.boell.org/en/2022/11/08/thai-foreign-policy)(검색일: 2023.01.18)
- Chen, Heather. 2022. “Thailand To Give Away One Million Free
Cannabis Plants To Households, Minister Says.” *CNN* May
11.
- Dalferro, Alexandra. 2022. “Threat To Amnesty International Reflects
Climate Of Repression In Thailand.” *Fulcrum* March 3.
- Haberkorn, Tyrell. 2015. “A Budding Democracy Movement In
Thailand.” *Dissent Magazine* July 30. [https://www.
dissentmagazine.org/blog/new-democracy-movement-thailand](https://www.dissentmagazine.org/blog/new-democracy-movement-thailand)
(검색일: 2022.12.25)
- Head, Jonathan. 2022. “Thailand Cannabis: From A War On Drugs
To Weed Curries.” *BBC* June 21.
- Human Rights Watch. 2022. “Myanmar: ASEAN’s Failed ‘5-Point
Consensus’ A Year On.” *Human Rights Watch* April 22.
[https://www.hrw.org/news/2022/04/22/myanmar-aseans-failed
-5-point-consensus-year](https://www.hrw.org/news/2022/04/22/myanmar-aseans-failed-5-point-consensus-year)(검색일: 2023/01/24)
- IMF Communications Department. 2022. “Press Release No. 22/299: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2 Article IV Consultation

- With Thailand, September 1, 2022.”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9/01/pr22299-imf-executive-board-concludes-2022-article-iv-consultation-with-thailand>(검색일: 2023.12.25)
- Jatusripitak, Napon. 2022. “Thailand’s New Electoral System: More Freedom Of Choice, With A Catch.” *Fulcrum* September 23.
- _____. 2023. “Democratic Consolidation Or Authoritarian Survival: Thailand’s Next General Election In 2023.” *Fulcrum* January 13.
- Khongkachonkiet, Pornpen. 2022. “US-ASEAN Summit A Missed Opportunity To Tackle Shrinking Civic Space Across The Region.” *The Diplomat* May 18.
- Lertchoosakul, Kanokrat. 2021. “The White Ribbon Movement: High School Students In The 2020 Thai Youth Protests.” *Critical Asian Studies* 53(2): 206-218.
- Matichon Online. 2022. “Ruchak ‘Phaksethakitthai’ Phak Mai Kwanthamanat [Knowing ‘Thai Economy Party’ New Political Party Of Thammanat Group].” *Matichon Online* January 20.
- _____. 2022. “Poet Prawat Unging-Phethongthan Thayatchinawat Huanakhropkhrua Phuathai [Ung-Ing Paethongtarn’s History, Hair Of Shinawatra And Pheu Thai Family’s Head].” *Matichon Online* March 22.
- McCargo, Duncan. 2021. “Disruptors’ Dilemma? Thailand’s 2020 Gen Z Protests.” *Critical Asian Studies* 53(2): 175-191.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ingdom of Thailand. 2022. “Thailand And Saudi Arabia Normalise Diplomatic Relations In Historic Visit.” January 26. <https://www.mfa.go.th/en/content/saudi->

arabia-thailand-normalise?cate=5d5bcb4e15e39c3060006842

(검색일: 2023.01.20)

- Montesano, Michael J. 2022. "Prayut's Suspension: The Authoritarian System Behind The Thai Premier." *Fulcrum* September 5.
- Minn Tent Bo. 2022. "The Rift Between ASEAN And Myanmar's Democracy Movement Is Growing Wider." *The Diplomat* November 16.
- O'Connor, Joseph. 2022. "New Shinawatra May Lead The Next Quest For Power As Phue Thai Party Aims For 14 Million Members." *Thai Examiner* March 22.
- _____. "3 Out 4 Believe That Pheu Thai Will Take Power In 2023 With A Third Shinawatra Taking The Reins." *Thai Examiner* December 13.
- Office o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NESDC). 2022. "The Thai Economy In Q3/2022 And The Outlook For 2022-2023." November 21. https://www.nesdc.go.th/nesdb_en/article_attach/article_file_20221121085936.pdf (검색일: 2023.01.06)
- Online Reporters. 2021. "Young Shinawatra Appointed Pheu Thai Chief Adviser For Innovation." *Bangkok Post* October 28.
- Pongsudhirak, Thitinan. 2022. "Geopolitical Takeaways From SEA Meets." *Bangkok Post* November 25.
- Poonkham, Jittipat. 2021. "The Bamboo Breaks: Thailand's Diplomatic Challeng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The Strategist* September 10. <https://www.aspistrategist.org.au/the-bamboo-breaks-thailands-diplomatic-challenge/>(검색일: 2023.02.10)

- Regalado, Francesca. 2022. "Thai Court Upholds Election Formula Favoring Opposition Pheu Thai." *Nikkei Asia* November 30.
- Reuters. 2022. "Daughter of Ex Thai PM Thaksin Extends Pre-Election Poll Lead." *Reuters* December 26.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daughter-ex-thai-pm-thaksin-extends-pre-election-poll-lead-2022-12-26/>(검색일: 2023.01.16)
- Rojanaphruk, Pravit. 2020. "Future Forward Successor Says He Will Continue The Fight." *Khaosod* March 7.
- Sanglee, Tita. 2021. "Explaining Thailand's Quiet Diplomacy In Myanmar." *The Diplomat* December 22.
- _____. 2022. "What Would Thailand's Foreign Policy Look Like Under Pita Limjaroenrat's Leadership?" *The Diplomat* March 3.
- _____. 2022. Thailand's Vanishing Regional Leadership." *The Diplomat* July 13.
- Sattaburuth, Aekarach. 2022. "Rome Wasn't Built In A Day." *Bangkok Post* February 28.
- Sattaburuth, Aekarach and Wassana Nanuam. 2021. "Prayut Sacks Thamanat, Narumon From Cabinet." *Bangkok Post* September 9.
- Silvan, Austin. 2016. "New Democracy Movement: Achievements And Future." *Prachatai English* Jun 9. <https://prachataienglish.com/node/6244>(검색일: 2022.12.25)
- Sirivunnabood, Puchada. 2022. "Thammanat Versus Phalang Pracharat: Who Will Win?" *Fulcrum* February 22.
- Sriring, Orathai and Kitiphong Thaichareon. 2022. "Thai Economy

- May Hit 2023 Growth Goal If Chinese Tourists Come-Finmin.” *Reuters* December 27.
- Storey, Ian. 2022. “Will America Greenlight The Sale Of F-35s To Thailand?” *Fulcrum* February 14.
- Strangio, Sebastian. 2022. “UN Envoys Calls On Thailand To Step Up On Myanmar Crisis.” *The Diplomat* January 19.
- _____. 2022. “Reformist Independent Scores Decisive Win In Bangkok Governor Election.” *The Diplomat* May 23.
- _____. 2022. “Thai PM Meets US Defense Secretary In A Bid Advance Security Ties.” *The Diplomat* June 14.
- _____. 2022. “Benjamin Zawacki On The Thailand-China-US Triangle.” *The Diplomat* July 12.
- _____. 2022. “Majority Want Thai PM To Leave Office This Month: Poll.” *The Diplomat* August 9.
- _____. 2022. “Why Did Thailand Abstain On This Week’s UN Vote On Ukraine?” *The Diplomat* October 13.
- _____. 2022. “Thai Drug Legalization Advocates Fight Growing Marijuana Backlash.” *The Diplomat* November 24.
- _____. 2022. “Thailand To Convene Regional Meeting On Myanmar Conflict.” *The Diplomat* December 20.
- _____. 2023. “Thailand Says COVID-19 Tests Not Needed From Chinese Tourists.” *The Diplomat* January 6.
- Taptim, Tulsathit. 2022. “Frenemy Politics To Be More Crucial Than Ever Before.” *Thai PBS World* December 16.
- Thai PBS World. 2022. “Why Was Thailand’s Cannabis Bill Voted Down And Will This Derail Legalization?” *Thai PBS World*

September 23.

Thai PBS World's Political Desk. 2021. "Court's Decision On Convicted Thai Minister 'Shocking, But Not Surprising.'" *Thai PBS World* May 7.

_____. 2021. "Move Forward Party Warns That If Lese Majeste Is Not Amended, It May Be Repealed." *Thai PBS World* November 3.

_____. 2022. "Move Forward Party Leader Most Popular Candidate For Prime Minister-NIDA Poll." *Thai PBS World* March 27.

_____. 2022. "Poll-Thailand's Central Provinces Want Paetongtarn Shinawatra As Next PM." *Thai PBS World* November 13.

_____. 2022. "2022 Review: Prayut Not Ready To Say Goodbye Despite Toughest Year As PM." *Thai PBS World* December 24.

_____. 2022. "2022: Does Pheu Thai's Comeback Year Herald Return To Government In 2023?" *Thai PBS World* December 28.

_____. 2022. "2022 Review: Prayut And Prawit Battle For Control At The Top Of Thai Politics." *Thai PBS World* December 31.

Thai PBS World's Regional Desk. 2022. "APEC 2022: A Few Highs And Some Lows For Prayut Government." *Thai PBS World* December 20.

The Board of Investment of Thailand (BOI). 2022. "Press Release No. 68/2022. Monetary Policy Committee's Decision 6/2022, Nov

- ember 30, 2022.” <https://www.bot.or.th/English/PressandSpeeches/Press/2022/Pages/n6865.aspx>(검색일: 2023.01.06)
- The Nation. 2022. “Suspected ‘Little Ghosts’ Deported From South Korea Back Home Safely.” *The Nation* August 6.
- _____. 2022. “No More Illegals: South Korea To Create 15,000 Jobs For Thais Next Year.” *The Nation* November 26.
- _____. 2022. “Smiling Prawit Says PPRP, Ruam Thai Sang Chart Virtually The Same Party.” *The Nation* November 28.
- Thoopkrajae, Veena. 2022. “Inflation Hitting Food Manufacturers And Food Sellers Hard.” *Thai PBS World* June 23.
- Trading Economics. 2022. “Thailand Inflation Rate.” <https://tradingeconomics.com/thailand/inflation-cpi>(검색일: 2023. 01.15)
- Udomthip, Duangphon. 2022. “Khon La Krueng Fet 6 [Khon La Krueng Phase 6].” *Thai Rath* November 1. <https://www.thairath.co.th/business/economics/2540511>(검색일: 2023. 01. 15)
- United Nations. 2022. “ELEVENTH EMERGENCY SPECIAL SESSION, 13TH & 14TH MEETINGS (AM& PM), GA/12458, With 143 Votes In Favour, 5 Against, General Assembly Adopts Resolution Condemning Russian Federation’s Annexation Of Four Eastern Ukraine Regions.” October 12. <https://press.un.org/en/2022/ga12458.doc.htm>(검색일: 2023.01.23)
- Walker, Tommy. 2022. “As World Leaders Gather For APEC Summit, Thailand Seeks To Boost International Relations.” *VOA* November 15.
- Wongsamuth, Nanchanok and Grace Moon. 2020. “Exclusive:

Hundreds Of Thai Workers Found Dying In South Korea With Numbers Rising.” *Reuters* December 22.

World Bank Group. 2022. “Press Release, Thailand’s Economy Remains Resilient Amid Global Headwinds.” December 14.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2/12/14/thailand-s-economy-remains-resilient-amid-global-headwinds#:~:text=The%20economy%20is%20projected%20to,the%20major%20drivers%20of%20growth>(검색일: 2023.01.06)

_____. 2022. *Thailand Economic Monitor: Fiscal Policy For A Resilient And Equitable Future*. December 14.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099245012132249289/pdf/P1797380511f390920aab30472d7e1f8276.pdf>(검색일: 2023.01.06)

Yuvejwattana, Suttinee and Anuchit Nguyen. 2022. “Thai Economy Grows Slower Than Estimated Amid Inflation Risk.” *Bloomberg* August 15.

웹사이트

한-아세안센터. <https://www.aseankorea.org/kor/>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 <https://aappb.org/>

Thailand Law Library. <https://library.siam-legal.com/>

(2023.01.30. 투고, 2023.01.30. 심사, 2023.02.9. 게재확정)

<Abstract>

Thailand 2022: The Chances of Change Created by Crises

Sinae Hyun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In the third year of the global pandemic and the eighth year of the military regime's authoritarian rule in Thailand, signs of change generated by the crises emerged in 2022. Prime Minister Prayut Chan-o-cha survived the fifth court case against him in September while the conservative right-wing elites that had supported Prayut's regime began to split, reducing the possibility of power consolidation among them. On the other hand, millennials and Gen Z activists that have arduously led the anti-military democratization movements since the 2014 coup succeeded in entering the political arena, augmenting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influence and popular base. The latter group is now preparing for a generational shift in politics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in 2023.

Easing the travel restrictions across the globe in 2022 helped revive the tourism industry in Thailand, reducing the unemployment rate and recovering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levels. The three-year economic recession under the pandemic left a lesson to Thailand which heavily relied on tourism and export-oriented manufacturing. The signs

of change emerged when the Thai economic sectors started looking into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digital infrastructure, a green and low-carbon production base and improving labor conditions, especially through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Although the unstable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s shall continue, the Thai economy may well recover to the pre-pandemic level in 2023.

Passive responses to the crisis in Myanmar and the failure to produce visible impacts from the regional summit convinced the international observers of Thailand's declining diplomatic power and regional leadership role. To restore the previous economic and diplomatic leadership on the regional stage, Thailand shall proactively resolve the domestic and external crises and integrate the demands for reform from the young generations and the working class.

Key Words: Prayut Chan-o-cha, Shinawatra, minimum wage, subsidy, inflation, quiet diplomacy, bamboo diplomacy

